

변화의 흐름 캐치 · 지역 경쟁력 강화... 전북교육도 변해야 할 때

‘변화의 아이콘’, ‘검손의 리더십’

지난달 31일 정년을 2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을 일컫는 말이다. 8년간의 총장직을 포함한 35년의 교수생활을 마무리 한 서 전 총장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명예 후 잠시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총장 재임 시절 ‘워커홀릭(workerholic)’이란 별칭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법 하다. 이에 본보는 서 전 총장을 만나 명예 소회와 그간의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서거석 전 총장 PROFILE

전북대와 같은 대학원을 나온 후 일본 주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한 이후 지금까지 “나후 전북의 고립된 현실을 돌파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파해왔다. 인생의 좌우명은 겸손과 섬김, 경청과 소통의 4개 단어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8년 동안 전북대 총장을 연임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대학 통합과 로스쿨 유치, 대학 평가 국립대 1~2위 등 현안을 무난하게 풀이한 동력도 여기서 나왔다.

총장 임기를 마친 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해 후학양성에 힘썼고, 지난 8월 31일 35년간의 교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5월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을 맡아 그늘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지난 8월 말 정들었던 강단을 뒤로 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 전북대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이런 대학을 떠나니 민감이 교차했습니다. 평교수로 시작해서 총장을 연임했으니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학내 교직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총장 재임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 제가 총장으로 취임했을 2006년 말 당시엔 전북대가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 날마다 새로워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사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변화와 개혁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 국립대 1~2위, 나아가서 국내 종합대학 ‘톱 10’ 내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와 산업 등 각 지표면에서 전북보다 5~6배할 수 있는 부산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부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만들었던 점입니다. 이밖에, 익산대학을 통합하고, 로스쿨을 유치했던 일, 세계적인 각종 연구소를 유치했던 일, 교육부 평가에서 ‘잘 가르치는 대학’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당시 ‘워커홀릭’이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 아, 총장 재임 8년 동안 단 하루도 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하다 보니 ‘워커홀릭(workerholic)’이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하루 한시라도 대학을 비워선 안 된다는, 대학과 조직에 대한 강한 애정과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도 즉시 집무실로 가서 일처리를 하곤 했지요.

Q. 전북 교육계에서는 지금도 변화의 전도사로 통합니다. 왜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까?

-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을 보면, 최후까지 살아남는 종(種)이 가장 강한 종이



총장 취임했을 2006년 말 대학은 총체적 위기 학사 전반 걸쳐 전방위적 변화 · 개혁작업에 매진

보통교육 단계서 기초학력 튼튼히 해야 고등교육 살아나 전북, 산업기반 취약하므로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

아니라 변화에 적응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조직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북교육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전북교육으로 바뀌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총장 재임시절 많은 성과를 거둔 리더십의 요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한 마디로 겸손과 섬김, 경청과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CEO인 총장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에게 호소하고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 구성원들이 적극 따라 주었고, 공감대 속에서 각종 현안 처리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Q. 대학의 고등교육과 초중고의 보통교육

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통교육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해줘야 고등교육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실하면 내실 있는 고등교육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대에서 학생을 교육하다 보니 전북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초중고 시절에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쌓아야 대학에 가서도 자신의 전공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유독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밝은 미래의 해법을 인재양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초중등 교육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우수 학생들은 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인도(教育正道)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최근엔 빈곤아동 교육 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십니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 부회장과 전북후원회장을 맡아 지난 5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키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맡게 되었지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앞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Q. 어린 시절에 어렵게 공부했다고 들었는데요?

-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중학 진학을 1년 쉬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새벽 신문배달로 학비를 벌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매점에서 하루 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교 매점에서 선배였던 현재의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함께 일하기도 했지요. 빈곤 가정의 어린이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 지자체, 교육당국이 힘써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전북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해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삼민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좋은 생각 고추장!

청정원 순창 찰고추장은

- 태양초 100% | 고추장내 고춧가루 11.3% 중
- 현미 100% | 고추장내 현미 20.4% 중
- 천일염 100% | 고추장내 천일염 6.8% 중